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Q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시장

(동향) 일부 건설지표가 기저효과로 반등하였으나, 불확실성은 여전
(전망) 선행지표 부진 누적, 부동산PF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부진 전망

전문건설시장

(동향) 계약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각
(전망)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전문건설업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주택시장

(동향) 매매지수 하락폭 둔화, 전세지수 상승, 수급지수는 상승 전환
(전망) 가격전망지수, 거래량이 상승세이나, 금리 등 불확실성은 존재

Q 이슈 진단

기준년도 변경에 국민계정 개편으로 건설투자액 조정

기준년도 변경으로 건설투자액이 상향되었고, 증가율은 소폭 조정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판결 검토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한 소송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

임대차 2법 시행 4년 도래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인 주택은 약 10%로 전·월세가격 상승 우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의 영향과 한계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은 긍정적이나, 건설경기 회복수단으로는 한계

시장동향 및 전망

거시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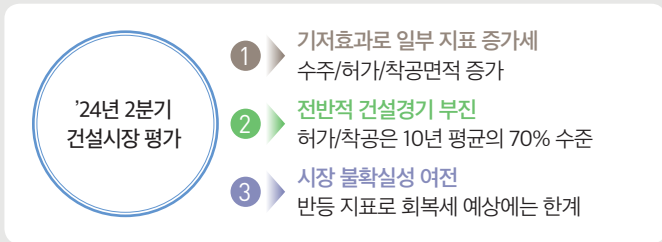
- ▶ 한국은행은 2024년 5월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0.4%p 상향 조정
 - 당초 예상보다 수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하반기에는 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세를 기대
 - 다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의 부진에 따라 올해 2%, 내년에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또한, 향후 전망경로 상 경제성장률과 물가부문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상방/하방 리스크를 제시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한국은행)

구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경기 회복세 강화 ·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세 지속 · 민간소비의 회복모멘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긴축기조 장기화 · 부동산 PF 구조조정 영향 확대 ·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불안 심화 및 국제유가 상승 · 수급차질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 기업들의 가격인상 움직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요압력 약화 · 국제유가 하락 ·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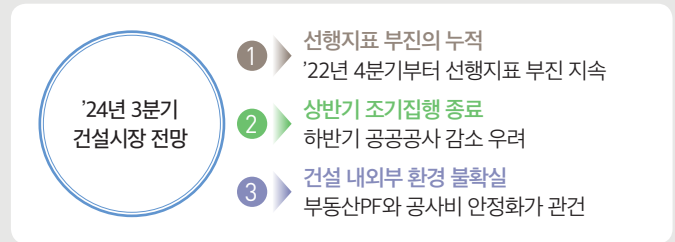
건설 시장

건설시장 2/4분기 동향



▶ 건설지표가 기저효과로 일부 반등하였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

건설시장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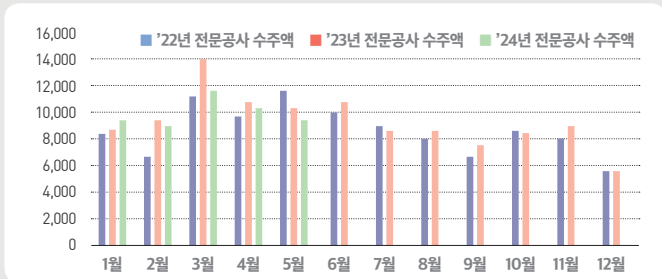


▶ 선행지표 부진의 누적, 부동산PF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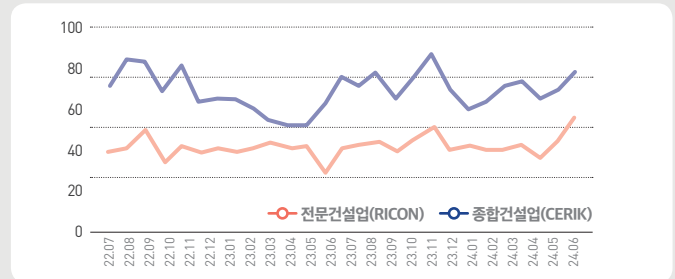
전문건설 & 생산요소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각
 - 업황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 않아 전문건설업 경기는 향후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기저효과에 따라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



종합 및 전문건설업 BSI 추이



주택시장

주택시장 2/4분기 동향

주택수요	매매하락·전세상승	보험
주택공급	상승 전환	소폭 상승
종합		불안정 완화

▶ 매매지수는 하락폭 둔화, 전세지수는 소폭 상승, 수급지수는 상승세로 전환

주택시장 3/4분기 전망

시장전망	전망지수 '100' 회복	소폭 상승
거래량	주택거래량 증가	소폭 증가
종합		위축 개선

▶ 가격전망지수·거래량 모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금리 등 불확실성은 존재

건설시장

“ '24년 2/4분기 건설시장: 건설지표가 기저효과로 4월 들어 반등하였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 ”

- '24년 1분기까지 부진하던 건설지표는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지속여부는 불확실
 - 건설수주는 1분기 15.9% 감소한 이후 4월에는 41.9% 반등하였으나, 금액적으로 '21~'22년을 하회하는 수준
 - 건설기성은 '22년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상승폭은 줄어드는 모습
 - 건축허가면적은 4월 들어 4% 증가하였으나, 물량측면에서 10년 장기평균은 76.5% 수준으로 여전히 부진
 - 건축착공면적은 4월에 36.8%로 수치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역시 10년 장기평균의 69.5%에 불과
- '24년 4월 건설지표의 반등세는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4월 지표만으로 건설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

주요 건설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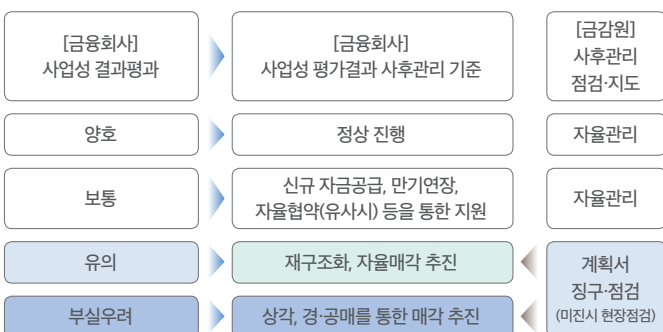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건설수주(경상)	13.4	21.4	30.2	-17.2	10.0	-12.7	-31.4	-44.8	22.9	-18.5	-15.9	41.9
건설기성(불변)	-1.7	1.9	3.6	6.7	2.7	11.5	8.7	10.1	0.9	7.4	4.1	0.8
건축허가면적(연면적)	14.1	13.7	5.4	-11.0	4.9	-8.5	-33.5	-32.8	-24.3	-25.6	-20.6	4.0
건축착공면적(연면적)	-15.6	-9.4	-6.4	-38.1	-18.0	-28.7	-46.5	-44.2	1.2	-31.7	-9.6	36.8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10.2	7.2	8.3	12.3	38.0	3.5	4.0	5.1	8.6	21.1	5.8	1.8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 '24년 3/4분기 건설시장: 선행지표 부진의 누적, 부동산PF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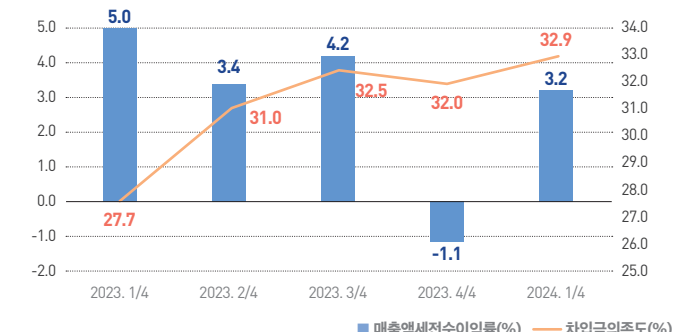
- 작년 3분기 건설경기가 크게 부진했다는 점에서 올해 3분기 지표상 감소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선행지표 부진이 '22년부터 누적되었고, 부동산PF 문제 등 건설 내외부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또한, 올해 상반기에 역대급 재정 조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공물량 감소세가 우려
 - 그간 선행지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동행지표는 악화, 선행지표는 기저효과로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
-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동산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
 - 최근 정부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응하여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것을 예고
 - 부동산시장의 PF 위험에 대한 우려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
 - 다만, 건설업계 수익성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부실위험이 크지 않은 건설사까지 타격이 우려되므로 속도조절 필요
 - 건설공사비는 202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가격 자체가 높아 체감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
 - 또한,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 재고관리가 어려워 주문 이후 생산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부동산PF 평가등급별 조치방안(2024.05.13.)



자료: 금융감독원

건설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추이(기업경영분석)



자료: 한국은행

전문건설시장

“ '24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각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4년 4월 10.5조 원, 5월 9.3조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하도급공사가 부진
 - 계약액은 경상금액으로 물가상승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간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전문건설업 계약액 전반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24년 2분기의 경우 원도급공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하도급공사 계약액이 크게 감소
 - 원도급공사의 경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계약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공사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발주물량이 감소하여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

'24년 2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

시 기	구분	추정 수주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4년 4월	전문건설업 전체	10,488	-2.0	+1.4
	원도급공사	4,018	+42.6	+27.7
	하도급공사	6,470	-18.0	-10.1
'24년 5월	전문건설업 전체	9,347	-8.8	-5.9
	원도급공사	3,337	+8.1	+13.0
	하도급공사	6,011	-16.1	-13.9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4.4~'24.5)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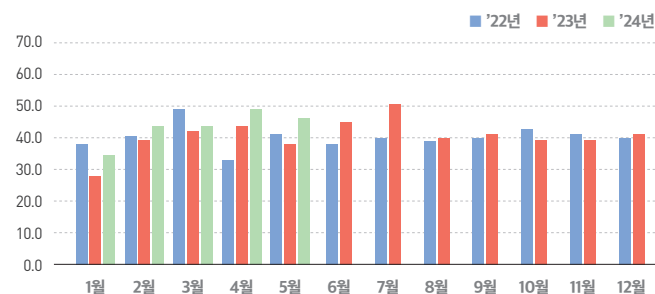
“ '24년 3/4분기 전문건설업: 업황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 않아 전문건설업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건설경기 부진, 거시경제 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역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건설수주 및 건축착공면적 감소 등이 시차를 두고 전문건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전문건설업 공종과 지역에 따라 여건이 일부 상이하지만 전체 업황의 가시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24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기저효과에 따라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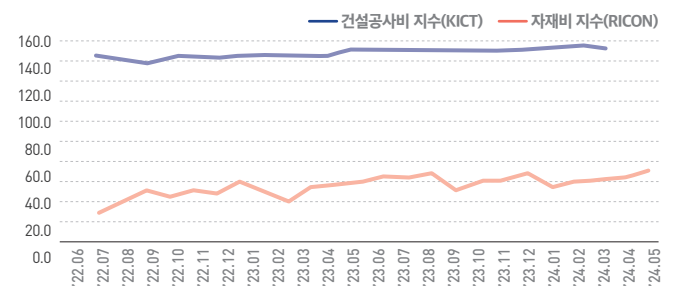
- 전문건설업체의 5월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46.7로 낮은 수준이며, 추가적인 개선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
 - 2분기 전문건설업 업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40대에 불과한 수준
 - 고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을 연계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지적된 것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업 상호시장진출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전문건설업체의 부진한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
 - 특히, 상호시장진출에 따른 수주경쟁심화 등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전문건설업 대혼란의 시기'라고도 표현특히, 건설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업체의 경기 체감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구분	'2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월별 전망	59.0	50.0	40.5	39.3	39.9	39.5	43.0	56.4	48.0	46.7
월별 평가	40.4	41.6	39.9	40.4	42.4	35.2	44.2	46.1	48.5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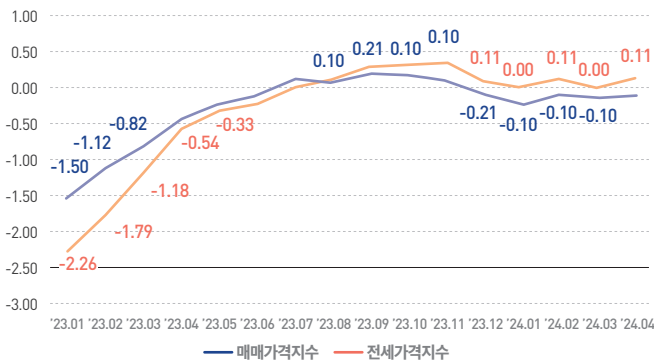
주택시장

“ '24년 2/4분기 주택시장: 매매지수는 하락폭 둔화, 전세지수는 소폭 상승, 수급지수는 상승세로 전환 ”

- **(주택 가격) '24년 4월 매매가격지수는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가 지속**
 - (매매)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으며('24.4월 기준), '23년 2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태
 - (전세) 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11% 상승하였고('24.4월 기준), '23년 3분기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는 중이기는 하나, 상승폭은 크지 않은 수준
- **(주택 수급)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영향력이 큰 주택수급지수는 100 이하이긴 하나, '24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 (매매) '23년 9월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던 매매수급지수가 '24년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
 - (전세)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93.5,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96.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요 증가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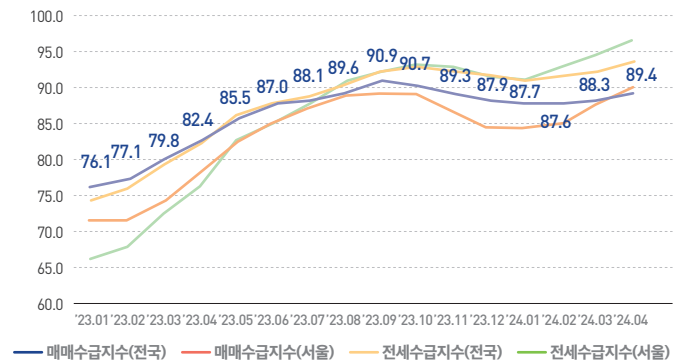
주택 매매·전세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전세수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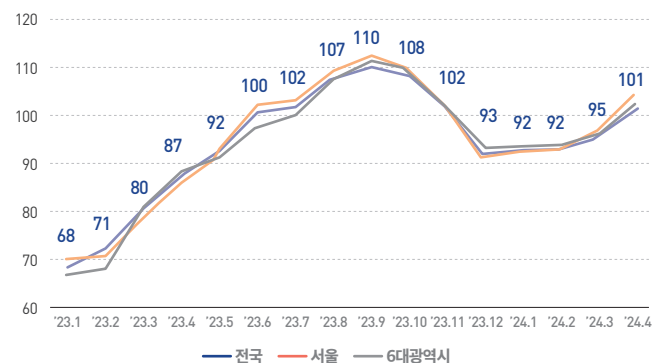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 '24년 3/4분기 주택시장: 가격전망지수·거래량 모두 상승세 전환되었으나, 금리 등 불확실성은 존재 ”

- **(시장 전망)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주택가격전망이 '24년 2분기부터 전국, 서울, 6대 광역시 모두 상승하고 있고, 전국 지표의 경우, '24년 4월 기준 101을 기록하면서 '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 100 이상을 기록**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 매매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24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불확실성은 상존
 - '24년 7월에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4년이 도래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
- **(거래량) 수요심리 개선에 따라 '24년 4월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 다만, 최근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한국은행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택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금리 상황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
 - 금리 수준에 따라 향후 주택수요는 물론 거래량의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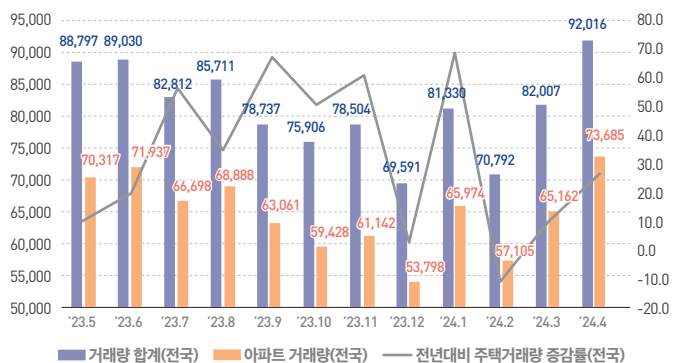
주택가격전망 CSI(Consumer Survey Index)



자료: 한국은행

전국 주택·아파트 거래량 추이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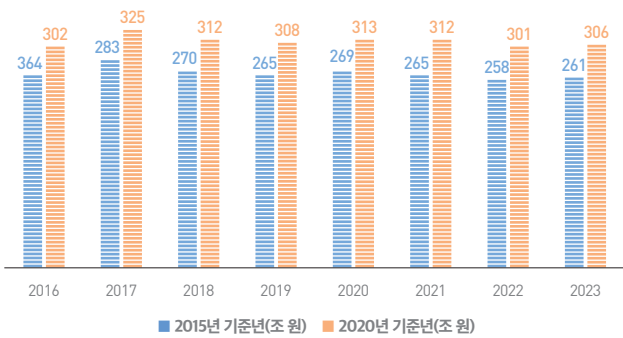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건설·주택시장 이슈 진단

이슈 1. 기준년도 변경에 건설투자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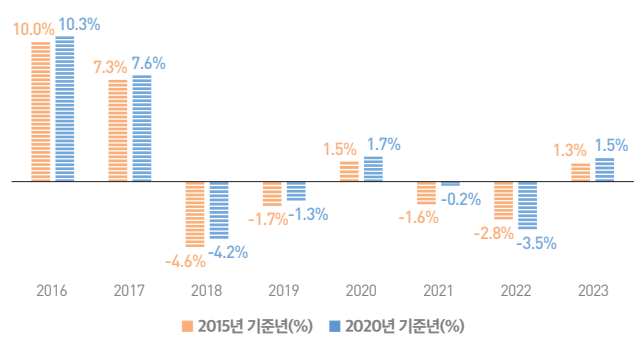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기준년도(2015년→2020년) 변경에 따른 경제규모 조정 결과를 발표(2024.06.05.)**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
 - 이번 개편은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분류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행
- **2020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 원으로 구계열(1,941조 원)에 비해 118조 원 확대(베이스업률 6.1%)**
 - 그 결과 2001~23년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3.6%로 구계열 성장률 3.5%에 비해 0.1%p 상향 조정
- **기준년도 변경에 따라 건설투자액 역시 상향 조정되었고, 증가율 역시 소폭 조정**
 - 결과적으로 '23년 건설투자는 261조 원에서 306조 원으로 45조 원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1.3%에서 1.5%로 소폭 상향

기준년 변경에 따른 건설투자액 변화



자료: 한국은행

기준년 변경에 따른 건설투자 증가율 변화



자료: 한국은행

이슈 2.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판결 증가 전망

-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
 -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의거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
 - * 부동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2024. 4. 4. 대법원 2023다3139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계약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문은 무효가 가능
 - 그러나 민법의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기존 중론
- **이번 판결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건**
 - 시공사는 발주처 사정으로 착공일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며 철근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특수한 상황에서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 요구
 - 발주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시공사와 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 1심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시공사에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을 근거로 특약 무효 및 시공사의 선급금 반환 의무 없음을 판시했고, 발주처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 최종 확정
- **위 판례의 사안은 공사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일반 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유지**
 - 또한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상승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일률적으로 무효 판결 날 것이라 보기는 무리
 - 다만,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본 중재 판정 사례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할 때 물가 급등기의 특수한 상황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유사 판결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이슈 3. 임대차 2법 시행(’20.7월) 4년 도래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 ”

- 2020년 7월, 정부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기존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늘려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상한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주요 내용
- 이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4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임대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결과, 계약갱신요구권이 만기 예정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24년 7월 13,169호로 추정되며, 이는 7월에 거래된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대비 13.8% 수준(전체 아파트 거래량 95,137호, 7월 기준)
 - ’24년 12월까지 총 64,309호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10.9% 수준
 -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올 7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반면, 계약 시점이 어느 한 시점에 몰리지 않고, 매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하반기에 금리 하락 전망으로 인해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
-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 대비 비중은 평균 10% 내외 수준일지라도 ①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아파트’ 거래 건수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이 만기가 예정, ②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③ 최근 전·월세 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

단위: 호, %

구분	'24.7월	'24.8월	'24.9월	'24.10월	'24.11월	'24.12월	합계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	95,137	95,522	96,116	101,514	95,120	104,479	587,888
만기 예정 거래건수	13,169	13,247	11,471	10,595	8,184	7,643	64,309
전체 거래 대비 비중(%)	13.8	13.9	11.9	10.4	8.6	7.3	10.9

주: 월별 전월세 아파트 실거래가 전체 데이터 중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입력된 거래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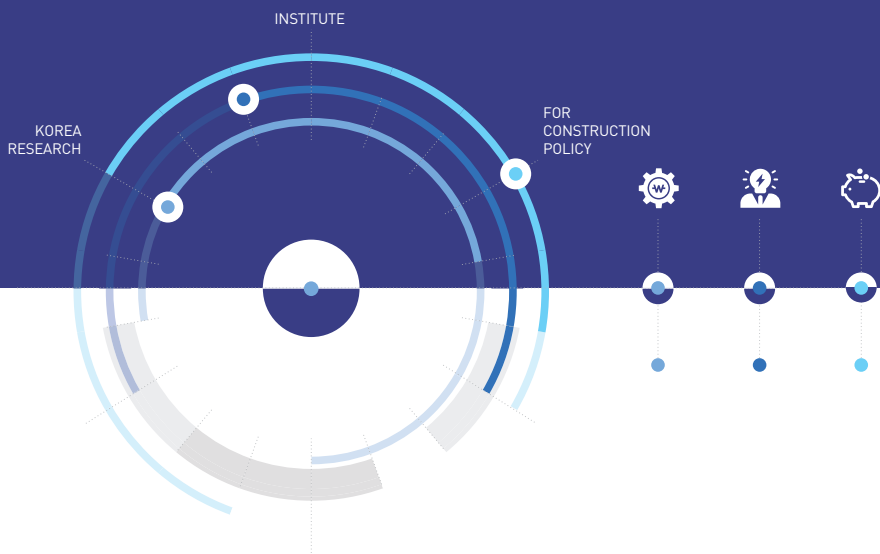
“ **이슈 4. 프로젝트 리츠 도입의 영향과 한계** ”

- 리츠의 개발사업 참여시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보완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복합개발 등에 적용)
 - 기존에는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의 규제로 인해 ‘PF개발(개발단계)→리츠 인수(운영단계)’라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리츠(개발단계)→일반리츠(운영단계)’로 변경됨. 구체적으로 개발단계(사모)에서는 일반투자자 보호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단계(공모)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사업단계의 규제를 완화
 - 기간 非주택에 대한 보증체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의 非주택 PF보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추진과 ‘미분양 CR리츠’의 도입은 일정수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리츠의 기본적인 목표가 사회공헌이 아닌 이윤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분양문제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하는 수단보다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현행 리츠와 프로젝트 리츠의 비교

개발		현행 리츠	프로젝트 리츠
개발	설립	인가	등록(운영 전환시 인가)
	주식 분산	1인 최대 50%	X
	보고	40건(소재지, 상호, 자본금 등)	1건(투자보고서)
	공시	17건(제무재표, 최대주주 등)	X
운영	주식 공모	준공 후 2년 내 30% 이상 공모	준공 후 5년 내 30% 이상 공모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4.06.17)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4. 6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정대운, 고하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07071
TEL 02-3284-2600 | FAX 02-3284-2620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